

공기는 인간 개인의 소유물이 아닐뿐 아니라 우리들 인간의 공유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더이상 담배로 부터 자유롭게 살아 갈수가 없다. 담배의 연기가 공기에 실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를 피우는 것이 "같은 장소에 있는 타인에게 피해가 될수 있다"라는 개념에 대한 인식도 없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이 별로 문제시 되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식당이나 비행기안, 연주회장등에서는 흡연석과 금연석의 구별이 생긴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괜찮은 것일까? 기본적으로 한개의 공간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직접 담배연기를 느낄수 없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만족할수 없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의해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흡연석·금연석 구분) 되더라도 차이가 별로 없다.

영미지역과 같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완전히 막을수 있게 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되어진다. 물론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워서도 안된다. 결국 자기자신 이외의 사람이 없는 때 라던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 곳이라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친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도 사람에게 담배를 피울 자유가 있듯이 싫은 사람이라면 담배 연기를 맡지않을 자유도 있다.

사람이 평생 담배 연기를 맡지 않고 살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사회 분위기는 너무 불평등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마치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을 피우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불평등하다.

앞의 주장이 지금 바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최소의 노력과 사회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